

경쟁 아닌 상호 존중



탈락의 드라마에서 연대의 서사로



“성탄절 맞이해 서로를 보듬고 아픔과 고통 함께 했으면”

성당·교회서 다채로운 성탄 행사

아기 예수 탄생일인 성탄절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성당과 교회에서는 일제히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 24일 오후 8시 북구 임동주교좌성당에서 옥현진 대교주 주례로 주님 성탄대축일 밤미사를 봉헌했다.

구유에 아기 예수를 안치하고 축복하는 ‘구유 예식’으로 시작된 미사는 이어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됐다.

온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며 “세상의 권력과 부를 헤아려 분주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가장 무력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강연했다.

성탄절인 25일에도 동구 남동 5·18성당 등에서 성탄미사가 진행됐다.

광주와 전남 각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잇따라 열렸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탄 축하 예배 겸 칸타타 콘서트가 열렸다.



성탄절인 25일 광주와 전남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다. 광산구 신창동 성안교회에서 펼쳐진 성탄 축하 예배 겸 칸타타 장면.

이병우 목사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성탄 축하 예배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태어난 날”이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은 우리의 아픔, 고통, 괴로움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며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도 서로를 보듬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뜻을 깨달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주와 전남지역 각 교회에서는 24일 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교회학교 성탄 전야 행사를 진행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붙는 구조가 경쟁의 밑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가 대항전인 만큼 승부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팀은 없다”며 도발이 오가지만, 동시에 운동인으로서의 존중 역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전설적인 복싱 선수 매니 파퀴아오가 등장하자 너도나도 먼저 악수를 청하고, UFC 레전드 로버트 휘태커를 향해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등 적대와 존경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은 오히려 보는 재미를 더한다.

팀전으로 설계된 만큼 연대의 서사는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네 종목의 접수를 합산해 최하위 팀이 탈락하는 ‘팀 대표전’에서는 개인의 실패가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국 팀의 경우 최승연이 ‘오래 매달리기’에서 뒤쳐지며 위기에 몰렸지만, 아모띠가 ‘자루 넘기기’에서 만회하며 팀을 구해낸다.

‘난파선 운송전’과 ‘성 점령전’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약체로 평가되던 한국 팀은 역할 분담과 전략을 앞세워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둔다. 서바이벌의 긴장감은 유지되지만, 승부의 핵심은 힘의 우열이 아니라 협력의 완성도다.

‘피지컬: 아시아’는 각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승까지 진출한 몽골에서는 울림피에 준하는 관심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국 시청자들 역시 몽골 선수들을 응원하며 국경을 넘은 연대에 호응했다. 이로 인해 한국 팀과 몽골 팀 사이의 우정이 화제가 됐고, 이는 스피노프 프로그램 ‘피지컬: 웰컴 투 몽골’로 이어졌다.

몽골 팀 주장 어르형바야르가 한국 팀을 몽골로 초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한국 팀 주장 김동현이 우승 후 몽골을 방문하겠다는 말을 실천하는 이스핀오프는 경쟁 이후의 관계를 담는다. 승부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교류는 최근 시청자들이 서바이벌 예능에서 기대하는 변화된 지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흑백요리사’와 ‘피지컬: 아시아’는 모두 여전히 치열한 경쟁 프로그램이다. 다만 그 경쟁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결과보다 과정, 격차보다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서바이벌을 보고 싶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서바이벌 ‘피지컬: 아시아’ 역시 변화된 문법을 공유한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피지컬: 100’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확장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몽골, 호주, 튜르키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의 운동인들이 출전해 최고의 피지컬을 겨룬다. 개인 능력을 앞세웠던 전작과 달리 국기를 걸고 맞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OTT 리뷰 <5> 달라진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2’

비판 있었던 ‘방출 시스템’ 없애고
요리 완성도·셰프 스토리로 차별화

‘피지컬:아시아’

한국·튀르키예 등 8개국 운동인 출전
역할·전략 앞세워 협력 완성도 보여줘

프 ‘백수저’와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맞붙는 요리 서바이벌로, 시즌1의 흥행을 발판 삼아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계급이라는 선명한 대립을 내세웠지만, 요리의 완성도와 셰프 개인의 스토리를 비추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백수저는 노련한 전문가로, 흑수저는 자유롭고 거친 감각의 요리인으로 대비되지만 경쟁이 진행될수록 두 집단 모두 풍부한 경력과 내공을 지닌 셰프로 그려진다. 계급은 긴장을 만드는 장치일 뿐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다.

시즌2는 이러한 방향성을 한층 분명히 한다. 시즌1에서 비판을 받았던 ‘방출 시스템’을 고감히 없애고, 격한 기싸움이나 자극적인 편집 대신 요리의 본질과 조리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특히 선제스님과 ‘뉴욕에 간 데지콜’의 대결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두 사람은 공정한 승부를 위해 나란히 채식 요리를 선택하며, 상대를 꺾기보다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요리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서바이벌을 보고 싶었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서바이벌 ‘피지컬: 아시아’ 역시 변화된 문법을 공유한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피지컬: 100’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확장한 이 프로그램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몽골, 호주, 튜르키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8개국의 운동인들이 출전해 최고의 피지컬을 겨룬다. 개인 능력을 앞세웠던 전작과 달리 국기를 걸고 맞

이어 스크리아빈의 ‘불꽃을 향하여 (Vers la flamme)’와 리스트의 ‘Weinen, Klagen, Sorgen, Zagen’ 변주곡으로 감정의 고조와 초월의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각 곡은 시대와 양식은 다르지만 인간 내면의 투쟁과 변화를 하 나의 서사로 잇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작품이 지닌 정신성과 흐름에 집중한다. 바흐의 엄격한 구조, 베토벤 후기 작품의 내적 성찰, 스크리아빈의 불꽃 같은 에너지, 리스트의 극적인 변주가 하나의 음악적 여정으로 이어지며 피아니스트의 해석과 집중력을 고스란히 드러낼 예정이다. 전석 초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바흐에서 리스트까지...최치현 피아노 독주회

내년 1월 10일 광주예술의전당

최치현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피아니스트로, 찰스턴 국제 음악 콩쿠르, 퀘벡 국제 음악 콩쿠르, 그랜드 메트로폴리탄 국제 음악 콩쿠르 등 다수의 콩쿠르와 국제 무대를 통해 연주 경험을 쌓아왔다. 맨해튼 음대에서 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까지 연주와 교육을 병행해 왔다.

피아니스트 최치현이 국내 첫 독주회로 관객 앞에 선다. 내년 1월 10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그가 쌓아온 연주 이력과 음악적 사유를 한 자리에서 풀어내는 자리다. (주)에나엔터테인먼트 주최·주관.

이번 무대는 그가 국내 관객과 처음으로 호흡하는 독주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무대는 바흐, 베토벤, 스크리아빈, 리스트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바흐의 토티카로 문을 열어 음악적 긴장을 세우고,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작품 111번을 통해 극적 대립과 사유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어 스크리아빈의 ‘불꽃을 향하여 (Vers la flamme)’와 리스트의 ‘Weinen, Klagen, Sorgen, Zagen’ 변주곡으로 감정의 고조와 초월의 순간을 향해 나아간다. 각 곡은 시대와 양식은 다르지만 인간 내면의 투쟁과 변화를 하 나의 서사로 잇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기교를 앞세우기보다 작품이 지닌 정신성과 흐름에 집중한다. 바흐의 엄격한 구조, 베토벤 후기 작품의 내적 성찰, 스크리아빈의 불꽃 같은 에너지, 리스트의 극적인 변주가 하나의 음악적 여정으로 이어지며 피아니스트의 해석과 집중력을 고스란히 드러낼 예정이다. 전석 초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